

2024년 9월 15일(주일) 제1700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기쁘고 은혜로운 추석이 되도록

-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 -

추석 명절이 다가와 전국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랄 것 없는 우리에게 올해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추수할 곡식과 과실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가 드러야 할 올바른 예배를 망각하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럽히고 온통 추한 것으로 가득차게 만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라고 인식하고 참되게 예배함으로 우리 가정들도 영적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교회는 이번 추석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본지 5면에 추석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추석 가족예배의 모범을 제재하였습니다.

호산나대학

2025학년도 입학설명회 및 신·편입생 정시모집

10월 25일(금)까지

발달장애인의 전문 보조 인력양성을 위한 3년제 직업전문대학인 호산나대학이 오는 9월 21일(토) 입학설명회(본교(청평), 서울교회(서울 강남) 동시 진행)를 시작으로 10월 25일(금)까지 2025학년도 정시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정시모집 전형은 입학시험과 면접을 통해 신입생 30명, 편입생 10명 총 4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판정을 받은 대상으로 202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입니다. 편입생의 경우 전공학부 2학년 편입으로 전문대 졸업(예정)자 또는 타 대학 2학기 이상 수료자입니다.

호산나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노인인구 증가 및 애견 인구 1,000만 시대라는 인구·사회학적인 변화에 따라 노인케어학과, 애견케어학과, 뷰티케어학과, 사무자동학과, 바리스타학과를 운영 중인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교 중심대학입니다.

발달장애 학생 개개인의 인지, 언어능력 등



2025학년도 호산나대학 입학설명회 & 신·편입생 정시모집

입학시험 최대 2년 장학금 지원!

입학 설명회

- 본지 - 2024년 9월 21일(토) 오전 10시
- 본교 - 2024년 9월 21일(토) 오전 10시
- 대상 - 입학시험 지원 희망자
- 내용 - 학교 소개, 입학시험 안내, 입학지원서 작성법
- 문의 - 031-585-9184

모집 연차

구분	정시 모집	비고
원칙	2024. 9. 21(토) ~ 10. 25(금)	연차생 및 수험생
입학	2024. 10. 26(일) ~ 11월	등록금 및 수업료
입학	2024. 11. 1일 ~ 11월 30일	등록금, 수업료 (재학생)
학	50,000원(입학) + 100,000원(수업료)	

주요사항

- 202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 인정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
- 편입생: 2학년 편입, 전공대 졸업(예정)자 또는 타 대학 2학기 이상 수료자

호산나대학 | 031-585-9184



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조기 취업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돕는 인턴십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대학 재학 중 교내 기업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와 '프로투게더'에 최대 2년간 채용되어 학업과 취업을 병행해 학생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산나대학 졸업생의 취업과 평생교육 관리를 위한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취업동문 정기모임, 보수교육, 취업자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회원제로 운영합니다.

입학 희망자는 대학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 또는 방문 접수일 경우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입학시험은 10월 26일(토) 오전 10시에 실시되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1일(금)입니다.

2025학년도 입학설명회 및 신·편입생 정시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호산나대학 홈페이지(www.hosannacollege.net)와 입학관리팀(031-585-9184)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기도가 먼저라!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한국교회사 50장면' 단행본 출간



지난 2023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손달익 위임목사님께서 순례자에 한국교회사 50장면을 연재하여 우리 역사 한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순례자 편집부에서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여 한 권의 단행본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피택 안수집사와 피택 권사 필독서로 제공되며 구독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각 교구 간사님들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위원회 섬김위원 모집

주일 1부, 2부, 3부, 찬양예배 및 수요 1부, 2부에서 섬겨주실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을 모집합니다. 섬김을 원하시는 성도들께서는 교회 사무국에 비치된 "섬김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가장 큰 감사

요 6:52-59



손달익 위임목사

빈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의 임재와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긍휼, 희생하시려는 마음, 현실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때 변화의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떡은 한순간 모두를 흥분시키고 황홀하게 만들었지만 인간 본성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일에 생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고 또 떡을 얻기 위해 주님 계신 곳에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님께서 기적의 떡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요 6:32-33). 그리고 이어서 하늘에서 참 떡을 주실 터인데 그 떡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요 6:49-51절)

1. 같은 현실 다른 처방

오랜 식민지배의 고통, 권력층의 부패와 정의의 실종, 의인 세례요한의 죽음과 이에 대하여 침묵하는 예루살렘의 정치권과 종교 세력들, 무기력한 군중, 배고프고 병든 서민들, 냉정한 민심 등 당시 현실은 어느 것 하나 온전치 못했고 이에 대하여 책임 있게 나서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는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아닌 생명의 떡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문제의 본질이나 대책도 인간의 변화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논란의 출발은 먹는 문제 즉 경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제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주님의 해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마 6:31-33)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마실 만큼 충분히 주시는데 인간 사회에서 서로 나누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실종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베푸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은 먹거리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현실이지만 진단이 다르니 처방도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줄곧 사람의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요 4, 5, 6 장) 그런데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인류 역사의 과정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본질은 더 악화되었고 새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새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29절)고 하였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36절)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40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없음을 탄식하셨습니다.

2. 믿음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는 유신론자의 입장에 서는 것, 그를 의지하는 것, 그의 도우심과 사랑을 확신하는 것 등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믿음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48절)고 하시면서 당신이 주시는 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인데 곧 자기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명백하게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우리 위한 희생제물 삼으실 것에 대한 결연한 의지의 고백이면서 사람이 구원 받고 새 피조물 되는 것은 이 방법뿐임을 천명하시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53, 55절)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고 주인 되는 삶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인 되어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주님과 연합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합한 삶은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영접하므로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되고 그의 죽으심은 내 죄의 대속 제물이 되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사이며
거듭난 사람이 누릴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영생은
장차 천국에서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고백하고
거듭난 날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3. 영생의 삶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영생은 단순한 ‘영혼불멸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롭고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영생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사이며 거듭난 사람이 누릴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영생은 장차 천국에서 시작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고백하고 거듭난 날부터 시작된 것이어서 우리는 이미 영생의 일부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57절). 영생의 삶이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신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이며 더 온전한 영생의 삶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목표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영생은 영광스럽고, 평화롭고, 지극히 은혜롭습니다. 오직 믿음 한 가지 때문에 이런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천국의 가치관을 따라 경건과 절제를 추구하고 예수 정신인 정의, 사랑, 평화를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생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세상에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롬 14:7-8). 이것이 영생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영생의 축복이 약속된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근원적인 은혜는 없습니다. 이 큰 은혜를 주시려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우리 위한 영생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는 성도들에게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부 여름 프로젝트 말씀, 3일 살기

신앙은 나의 삶의 전부



옥유진
(청년부)

이번 청년부여름수련회는 8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2박 3일간 가평성산교회에서 “시골교회 3일 살기”라는 테마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여는 수련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아가페타운이 아닌 한적한 시골 교회에서 하기도 하였고, 끼니도 직접 해결해야 하는 만큼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힘으로 삼시 세끼 다 챙길 수 있을거라 자부했지만 도움을 주신 모든 손길이 없었더라면 진행이 되지 않았을 만큼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된 수련회였습니다.

도심에서 떨어진 자연에서 청년들끼리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눔하는 이 시간이 정말 귀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 취업 준비로 바쁜 청년, 새 학기 준비 중인 대학생 청

년 등 모두들 각기 다른 상황 그리고 바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수련회를 찾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한층 더 신앙의 성숙함을 느끼고 성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 시간마다 마태복음 27장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현종필 목사님의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는 때, 새 생명을 얻기 위한 마음의 고백, 회개의 기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단번에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도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에 저항 없이 무너져버린 연약한 믿음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헤아려보지 못할 만큼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였고 내 사랑은 단번에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에 맞서 싸워야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양정호 목사님께서 ‘신앙과 신념의 차이’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배우게 되었고, 진정한 그리스도

인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 다시금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닌 삶의 변화가 뚜렷히 나타나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이 취미가 되지 않고 나의 삶 전부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외에도 2박 3일간 진행된 여러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청년 간 더욱 친밀해지며 공동체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재밌는 활동을 하고 나눔을 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더욱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되고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수련회를 기획한 청년부 임원단과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현종필 목사님, 양정호 목사님, 끝없는 도움을 주신 청년부 선생님들과 맛있는 음식을 해주신 권사회 그리고 기도로 응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더 뜨겁고 사랑이 넘치는 청년부가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 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유성결
(청년부)

살롱! 저는 서울교회 초등부 교사이자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고 있는 유성결 성도입니다.

청년부여름수련회에 포크댄스와 캠프파이어 물품 준비 담당을 맡았습니다. 긴장도 있었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교회에서 가평성산교회로 가는 여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여는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조별 프로젝트로 “라면왕”을 진행했습니다. 조마다 각자만의 레시피로 열심히 심사위원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우리 조는 화려한 비

주얼과 강력하게 입맛을 자극하는 “불닭 리조또”라는 음식으로 1위를 했습니다.

수련회 두 번째 날에 진행되는 조별 ‘프로듀스 온니 원’을 위해 첫날부터 조원들은 난타에 사용할 도구로 손가락을 고르고 곡조에 따라 박자도 맞추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처음 접하는 손가락 난타에 손가락이 아팠지만, 조원들은 최선을 다해 멋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찬양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말씀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동안 진실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생각나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휴식을 견고 별레들과 꽃들을 친구삼아 마을을 돌아다니며 임무 수행할 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

원한 그늘이 그리웠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신 듯 권사회에서 오셔서 맛있고 풍성한 점심 식사를 요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그대로의 계곡 감성에 시원함을 느끼며 즐거운 물놀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만두전골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한 조가 다 하기에 너무 버거워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청년부의 협동심이 잘 드러난 것 같아서 속으로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다 같이 동그란 모양으로 둘러싸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따스함을 경험하는 특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부여름수련회가 조별로 식사해야 하고, 시골 체험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힘들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

서는 더 큰 사랑으로 우릴 이끌어 주셨음을 체험했습니다.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청년부 모든 분께 진

심으로 감사합니다. 샬롬~^^



믿음의 행동을 실천하는 신앙인



유승현
(청년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몰랐을 뿐, 언제나 저희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로 저의 발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와 같이 현재에도 임

하심을 믿습니다. 이번 필리핀 비전트립에 촬영을 위해서 갔을 때, 힘이 들어 그만두고 싶어 기도드릴 때,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절 위로해 주셨음을 이제 압니다.

저에게 몇 년간 영화제작이라는 일을 허락하신 일 또한 필리핀에서의 그 짧은 순간을 위해 계획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후로 그 순간의 은혜 받음과 기쁨의 느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태 확실한

답이 없다면 행동으로 하지 않았고, 기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게 기도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항상 내 기도가 도움이 된다면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처음으로 타인과 제 자신을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믿음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은 분명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바를 못 보았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젠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여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 속 과거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과거의 보여주신 기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앞으로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러하심과 같이 지금과 미래에도 이루어지리라 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가올 순간을 위해 믿음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저를 바라신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다리지만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좀 더 궁금해하라고 기다리고 있으니 다가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수련회 기간, 글로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과 믿음을 행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는 순간까지 핍박했던 이들조차 필요한 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고, 그런 사람들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순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수련회에 오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과 서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제는 제가 먼저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많이 부족한 저이지만 이제는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믿음의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오는 월요일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모처럼 한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추석.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모범을 제시합니다.

예배순서

목도		다함께
성시	시편 102편 25-28절	인도자
찬송	429장	다함께
기도(또는 사도신경)		다함께
성경봉독	골 3:15-17	인도자
메시지	“감사로 풍성하게”	인도자
찬송	384장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골 3:15-17

-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로 풍성하게

그리스도인 가정들은 한가위에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17절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1. 그리스도의 평강(15절)

1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감정적 평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요14:27에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영적인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복잡하고,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평강이 임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큰 기쁨이 되는 주님의 평강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후반부에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은 자로서 이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가족 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 그리스도의 말씀(16절)

16절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인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저 읽고, 인용하는 것을 넘어 말씀이 삶 전체에 차고 넘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이해하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주고,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16절에서는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한다고 말하며 말씀이 가정을 더 견고하게 세워 나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을 깊이 더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가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풍성히 채우시는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전해주는 덕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봅시다.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해 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들을 축복할 때, 가족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3. 주 예수의 이름

17절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16:18에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요한복음 14:13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추석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풍성한 수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과일과 곡식과 물질의 풍요로움만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느끼고 감사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문화교실 여름학기 종강

9월 15일(주일)까지

더운 여름 7월부터 시작된 문화교실 여름학기를 9월 15일(주일)로 종강합니다. 수고하여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을학기는 10월 12일(토) 개강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18일(수) 만 나홀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희 결혼합니다



- 안형배 군 · 윤승은 양
(1교구 윤춘섭 집사 딸)
9월 21일(토)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오후 4시 30분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김민우 오원준 감정헌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70인전도대 9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9.1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9.4	도르가, 루디아, 뵈뵈
9.8	자원자	바울, 엘리야	9.11	마리아
9.15	자원자	모세	9.18	추석
9.22	자원자	이삭	9.25	리브가
9.29	자원자	스데반회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일 자	요일	1년 1독
9월16일	월	욥 1-3
9월17일	화	암 1-9
9월18일	수	욥, 욘 1-4
9월19일	목	미 1-7
9월20일	금	나 1-3, 합 1-3
9월21일	토	슌 1-3, 학 1-2
9월22일	주일	슌 5-9

이름:

맥체인 성경통독			
삼하12	고후5	겔19	시64,65
삼하13	고후6	겔20	시66,67
삼하14	고후7	겔21	시68
삼하15	고후8	겔22	시69
삼하16	고후9	겔23	시70,71
삼하17	고후10	겔24	시72
삼하18	고후11	겔25	시73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가족과 지인들과의 반가운 만남의 장소에 복음의 향기와 영향력이 전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2. 서울교회 4대 위임목사 청빙 절차가 기도로 시작되었사오니, 은혜로운 진행이 되도록 인도 하소서.
3. 분단을 넘어 복음 위에 통일된 나라가 되도록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픔과 눈물 이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위로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장석남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전도사

박미라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태연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성선혜

◇ 협동목사

양정호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602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